

## 2: 왜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ART 마켓이 성장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백화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아트 시장에서도 매우 큰 판매 규모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일본만의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그림을 사고파는 것은 어딘가 속물적이다”라는 가치관이 강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이나 자산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작품들이 “어디에 걸 것인가”라는 맥락 안에서 선택되어 왔습니다. 물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것 역시 중요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ART 마켓에서 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작가의 사상과 사회와의 연결성까지 포함해 평가되며, 그 가치가 공유되고 형성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어 온 많은 작품들이, 세계 기준에서 보면 아직 ‘장식으로서의 아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아트씬이 국제적 평가 체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만에서 작품을 소개했을 때는,

“이 작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작품 자체뿐 아니라, 가치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새 집 현관에 걸 그림을 찾고 있다”는 동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즉, ‘소유하고 함께 성장시킨다’는 컬렉션 문화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작품이 존재하는가?”

“왜 세계는 이 작가를 평가하는가?”

와 같은 사고를 함께 나누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축적이야말로 일본에 진정한 의미의 ART 마켓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